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올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항상 마스크 하기** • **안전 거리 두기** • **손 자주 씻기**
-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순교의 영성을 삶으로 실천하기**

## (녹)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2. 9. 25.)

###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아모스 6,1ㄱㄴ.4-7):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짚은 노래를 불러 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 제2독서(티모테오 1서):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

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일 일이 없고 뵈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복음(루카 16,19-31):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저희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이주민과 난민과도 함께하며 그 누구도 내버려 두는 일이 없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물질의 풍요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굽어살피시어, 서로 도우며 평화를 이루는 정신과 가치의 지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3.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낫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날로 발전하는 의학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살피시어, 고국과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일구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웃으로서 힘이 되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수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46 사랑의 송가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342 제물 드리니  
영성체: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 499 만찬의 신비  
파 견: 283 순교자 찬가

## 공지 사항

### ♣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개학 햄버거파티: 9월 25일(금일) 교리 후

### ♣ 감사합니다

- 주일학교 후원 : 안희관 요셉(100유로), 윤미자 모니카(100유로), 윤옥주 유스티나(100유로).

###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주소 : [www.cmilano.org](http://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한인공동체 가을 체육대회

- 일시 : 22년 10월 15일(토)  
- 장소 : 작년과 동일 (상세내용 추후 공지)

### ♣ 봉사자

	오늘(25일)	다음 주일(2일)
제1독서	임근영 사무엘	미정
제2독서	김윤경 모니카	미정
복사	엄채운 엘리사벳	안태오 마태오
복사	엄소윤 라파엘라	김익찬 암브로시오
계단·화장실	임근영 사무엘	미정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97.1      • 교무금 € 870.-